

# ‘계몽’의 신화에 담긴 퇴보의 씨앗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의 이론과 《계몽의 변증법》

김문환

서울대 교수·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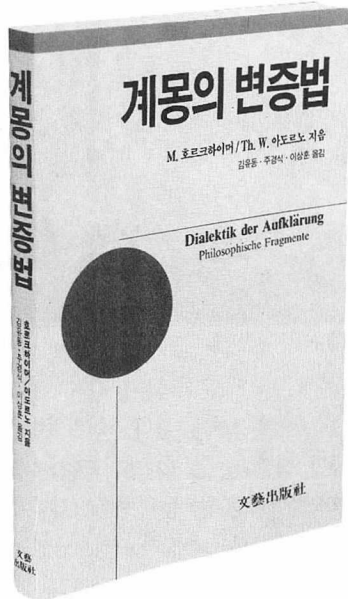
이 책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으로 통칭되기도 하는 비판이론의 창시자격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공저이다.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이 책은 그들이 이후에 전개한 이론적 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39년 가을부터 써서 남겨놓은 두 사람의 메모를 바탕으로 1942년 공동토의를 거친 구술에 의해 1944년 봄에 탈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을 위해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단지 두 사람이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문단들을 함께 써 내려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속에 뒤엉켜 들어간 두 사람의 정신적 기질이 빚어내는 긴장이 생동적인 요소로 여겨지리라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 계몽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의기투합하도록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원래 마르크스 연구소로 이름붙이고자 했던 사회조사연구소와 이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연구가 지니는 기본성격과 전개과정에 대한 침착한 탐색을 바탕으로 해서야 가능해지겠지만, 당시의 대립적인 두 가지 사고 내지 행동방식에 대한 통시적인 비판이 그 근본동기라고 말해도 무난할 것이다. 후일에 현실사회주의로 통칭되는 소비에트마르크시즘 및 이에 대한 동조세력과 나치즘이 바로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특히 1933년 투표에 의해 집권하게 된 나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좀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표제 그대로 ‘계몽’이 지닌 한계와 관리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말을 바꾼다면, 그것은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는 대신 새로운 종류의 야만으로 빠져들어 갔는가라는 인식’과 ‘자유를 지키고, 전개시키고, 확산시키려는 열정’을 공동적인 바탕으로 삼고 있다.

사람의 사람다움이 이성이라는 능력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 두 사람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성이 단순히 ‘도구주



의적인 이성’으로만 기능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반성능력’의 작용을 상실하게 된 사태에 대해 그들은 전존재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어떤 사상도 상품으로, 어떤 언어도 상품을 위한 선전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저항은 그러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화산업을 대증기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거기에서는 물화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신앙에게 합당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기질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칫 유아론적으로 간혀버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작업을, 세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진보의 파괴적 축적 측면, 또는 계몽 개념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퇴보의 씨앗을 인식함으로써 이 땅 위에 진리를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작업으로 좀더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힘이 되어버린 지식이 경제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장치와 이를 운용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엄청난 월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기본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류가 완전히 배반당하지 않으려면 ‘계몽’이 스스로를 돌아

## 비판이론의 창시자격인

### 두 사상가의 정신적 기질이

### 빚어낸 이 책은 표제 그대로

### ‘계몽’이 지닌 한계와 관리사회

###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 담고 있다. 저자들은 왜 인류는

### 진정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는

### 대신 새로운 종류의 야만으로

### 빠져들어갔는가에 대해

### 전존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집단적 허위의 식으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분명히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개인들이 노이로제라는 정신적 질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듯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하사한 것이거나 인간본성에 뿌리를 둔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은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이 비판이론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 현대적 고전으로 자리잡아

계몽이 신화로 퇴보하게 된 사태의 원인을 “진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경직된 계몽 자체”에서 찾자 한 이와 같은 작업이 그 나름대로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 책이 쓰여진 시기와 연관된 의미부여를 좀더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9년은 나치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불붙기 시작한 해이다. 그러가 하면 1944년은 연합군의 반공이 시작되어 대전의 귀추가 대체로 정해진 해이다. 그러기에 이 책을 나치스 독일에 대한 분석으로 의도되었다고 볼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치스 독일의 패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 체제가 몰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배했던 기본적 사고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보는 편이 이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좀더 사리에 맞는다. 20여 년이 지난 후 복간 서문에서 그들이 거대한 세력진영으로 나누어진 정치적 분열과 제3세계에서의 갈등, 즉 전체주의의 새로운 성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 특히 아도르노가 말하는 관리사회는 전후의 미·소양국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경우가 많다.

특히 ‘문화산업’과 연관하여 이 책의 현실성을 약화 내지 축소시키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닌 이른바 현대적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결코 퇴색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꽤 다행한 일이다. 어려운 작업을 끝낸 공역자들에게 치하를 보낸다.

필자 자신도 서울대학교 출판부로부터 이 책의 번역을 의뢰받고 또 다시 되풀이해서 읽어본 바 있지만, 끝내 번역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인지를, 그 노고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의 번역은 본문의 맛을 꼼꼼하게 살려내는 데 다소간 미흡한 느낌을 준다. 번역은 물론 독자의 이해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급적 독자들이 원문을 실감할 수 있도록 옮겨야 하는 과제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책은 1947년 암스텔담의 퀘리도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이후, 1969년에 저자들이 쓴 짧은 신판 서문이 붙여진 채 독일의 피셔출판사에 의해 복간되었다. 그러나 이미 1944년에 사회조사연구소 친구들 사이에 배포된 타이프 인쇄본도 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공저인 까닭에 두 사람의 전집에 각각 수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판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번역의 경우 무엇을 원본으로 삼았는지를 밝혀두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 피셔판 호르크하이머 전집에는 초판으로부터 오늘날에 공간된 판본에 이르기까지의 성립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세한 대조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참조했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

M. 호르크하이머, Th. W. 아도르노 지음 /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문예출판사 / A5신 / 350면 / 10,000원